흔적으로 보는 옛 가람 난방문화, 온돌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온돌 – 회암사의 겨울나기'
11월 8일~ 2020년 2월 9일

부뚜막 등 온돌유구 100여 건
회암사 서승당지 온돌방 재현
증강현실 영상 서승당 체험도

사지의 흔적과 출토된 유물을 통해 우리건축의 전통 난방 양식인 '온돌'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11월 8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온돌 : 회암사의 겨울나기'를 개최한다.

온돌의 역사와 구조 등을 조명하고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 출토된 온돌유구의 현황을 살펴보는 이번 전시는 굴뚝토기(국립공주박물관), 부뚜막(국립중앙박물관) 등 100여 건의 전시물과 정보 패널을 통해 회암사지 온돌의 현황과 가치를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온돌방의 재현으로, 국내 온돌 건물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출토된 서승당지를 일부 전시장에서 재현한다. 서승당지는 출가대중의 참선공간이자 행사 때 외부인의 쉼터로 추정되는 공간이다. 남북 길이가 약 32.6m에 달하는 대형 건물 안에 'ㅌ자' 형태의 탁상구조 온돌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전시현장에는 전체 건물지 중 북쪽에 해당하는 절반의 실내구조를 약 1/4 규모로 축소 재현하여 연출했다. 'ㅌ'자 형태의 탁상구조 중 'ㄷ'자 부분에는 관람객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 실제의 온돌처럼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재현했다. 또한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벽면의 영상을 통해 내부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참선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마치 옛 회암사의 서승당에 실제로 들어온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다.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된 온돌은 우리나라 건축 및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산중 사찰에서도 역시 주요 난방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는 최대 3천여 명이 머물렀던 대규모 사찰로, 예불 공간과 주거 공간 등 82동의 많은 건물이 3만여㎡에 걸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온돌시설이 확인된 38개의 건물터는 우리나라 단일유적 내 최대 규모의 온돌유구 군으로, 옛 회암사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의 겨울 생활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돌로만든 화로

부뚜막 (국립중앙박물관)

쇠솥

굴뚝(국립공주박물관)

이번 전시는 회암사지의 온돌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를 통해 난방의 종류와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난방의 특징인 온돌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회암사지 온돌의 현황 및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1부, '추위를 피하다'에서는 동서양의 난방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기상과 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형성시켰다. 추위극복에 대해 동서양에서는 나름의 난방형태를 발전시켜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화덕, 부뚜막 등을 통한 난방시설을 사용해왔다. 특히 침상 등 부분적으로 바닥면을 데우는 난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는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와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했다. 반면 서양에서는 실내에서 공기를 데우는 화덕이나 벽난로와 같은 난방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고구려의 아궁이와 굴뚝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부뚜막(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전시된다.

△2부, '돌을 데우다'에서는 우리 온돌의 역사와 구조 등을 조명한다. 온돌(溫突)은 순 우리말인 '구들'을 표현한 한자어로, 선조들은 돌에 열을 가하면 일정시간 온기가 지속되는 속성을 파악하여 바닥에 돌을 깔고 이를 데워 온돌을 사용했다. 온돌은 아궁이와 굴뚝, 그리고 구들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추운 산중사찰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온돌이 사용되었고, 오랜 시간 한반도의 겨울을 책임지는 중요한 난방시설이었다. 굴뚝토기와 돌로 만든 화로(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전시된다.

△3부, '온기를 채우다'에서는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온돌유구를 조명하고 화암사의 겨울나기를 알아본다.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우리나라 단일유적 중 가장 많은 수의 온돌유구가 확인됐다. 총 38개에 이르는 많은 건물지에는 난방 또는 간단한 취사까지 겸할 수 있는 아궁이와 구들이 남아있다. 특히 여러 형태의 온돌이 용도가 명확한 유구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중 많은 출가대중이 참선하던 공간인 서승당 건물지에서는 'ㅌ'자형의 탁상구조가 출토되어 효율적인 온기보존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시장 내에서는 서승당 내부를 재현한 공간에서 온돌방의 온기체험 및 가상승려와의 참선활동 체험이 진행된다. (031)8082-4170.

서예와 그림의 새로운 경계


류경희 作, '홍매' 68x35cm

류경희 초대전 '붉은 문인화'
11월 21~30일 경주 황룡원
반야심경 · 홍매 등 30여 점
맑은소리맑은나라 20주년 기념

재일 경제학자로 선화를 그려온 류경희 작가가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황룡원 1층 건명원에서 초대전 '붉은 문인화'를 개최한다.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의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류 작가는 '반야심경', '홍매', '부처님' 등 서예와 그림의 새로운 경계를 보여주는 선서, 선화 그리고 전각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형식면에서 조선의 문인화적인 요소를 잇고 있는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문인화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불교의 선(禪)적인 색채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작품들이다. '잘 그린 그림'이라는 기예적 시점의 그림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寫意)'에 방점을 둔 그림과 글씨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에서 이미 글씨는 기존의 개념과 완전히 벗어나 있다.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의 개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하나의 그림이다. 그림 역시 마음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뜻을 가진 글자와 같은 의미를 띤다. 기존의 글과 그림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다.

이번 작품들 중 그림의 특징은 붉은 색이다. '환매' '홍매' 등 다른 수묵에서 보기 힘든 묵과 붉음의 조화가 눈에 띈다.

2018년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류 작가는 같은 해 한중일 서화전에 초대됐으며, 2019년 나무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일본 낙농학원대학 교수(유통학 연구실)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주최하는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는 1999년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동명의 월간지 창간과 함께 창립됐다. 사찰사보 제작, 법요집 제작, 단행본 제작 등의 도서출판 사업과 팜플렛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디자인사업 그리고 전시 · 행사기획, 불교아카데미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불교발전에 기여해왔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는 2016년까지 무료로 불자들에게 배포돼 불법홍포에 큰 역할을 해왔다.

맑은소리맑은나라 김윤희 대표는 "불법홍포라는 원력을 내걸고 문서포교의 걸음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20주년을 기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위한 점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류 작가의 '붉은 문인화' 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류 작가의 작업 역시 저희 문서포교와 같은 불법홍포의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시대에서 불교를 바탕으로 한 예술문화가 꽃피는 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포교라고 생각합니다."고 이번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054)760-0500. 박재완 기자

전통조각 우리가 지킨다

제16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
통도사성보박물관 11월 23일~12월 21일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한주영, 이하 조각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전을 개최한다.

전통조각의 저변을 다시 넓히기 위한 이번 전시에는 한주영, 류수관, 조병현, 한봉석 등 45명의 회원이 참여해 '아미타삼존불감', '석가모니불', '거북 모란 꽃살문' 등 불교 관련 조각과 공예 작품 등을 선보인다.

1986년 창립된 조각회는 이 같은 전통조각의 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조각을 발전시키고 문화재 보수와 재현에도 힘쓰고 있다. 생활 속에서 민족과 함께해온 뛰어난 조각품과 공예품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기능인협회 조각인분과 회원들이 창립했다. 2년에 한 번 씩 열고 있는 전시를 통해 전통미술의 품격을 높이고 매년 전회원이 국토를 순례하며 문화재답사(성지순례)를 진행해왔다. 또한 쉼 없는 세미나를 통해 전통미술의 가치를 조명하고 알려왔다.

한주영 회장은 "지금은 전통조각 장인들이 너무나 급변하는 현실에서 수입조각에 밀려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지는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작품을 출품해 주신 조각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문화재에 관련된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한주영 作, 관세음보살.



